



# 생활 속 작은 일탈을 꿈꾸다

(주)유비온 레저동아리 'COT'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일하고, 퇴근하는 따분한 일상.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생활 속에서 스트레스의 해소는 물론, 직원 간의 끈끈한 정이 있는 작은 일탈은 약이 된다. 평생교육 및 성인자격증 콘텐츠를 인터넷 등을 통해 서비스하는 이러닝 산업의 선두주자, (주)유비온의 레저동아리 'COT'는 일탈을 꿈꾸는 유비온인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주는 사내동호회다.

글\_김은미 | 사진\_김민정

## (주)유비온

(주)유비온(대표 임재환, [www.ubion.co.kr](http://www.ubion.co.kr))은 2000년 1월에 설립, 평생교육 및 성인자격증 콘텐츠를 인터넷 등을 통해 서비스하는 벤처기업이자 평생교육기관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라도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유비온의 소명의식. 와우패스, 랜스쿨, 고시닷컴 등 온라인 교육사업은 물론, 교육정보화사업, 기업교육사업, 출판사업 등 다양한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는 유비온은 스마트폰, PDA, 셋톱박스, DVD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한 이러닝 시스템 시장을 이끄는 기업이다.



※ 벤처기업의 멋진 동호회를 취재하는 코너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동호회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참여문의 : 벤처산업협회 홍보정책팀 02-890-0632 / hongbo@kova.or.kr



**몸이 근질거리는 당신, COT로 오라!**

크리에이티브를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의 직원들은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아이디어를 터득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매일 정해진 일상을 견뎌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많은 벤처기업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내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간 협력 활성화'에 유비온도 사내동호회 지원으로 한 몫을 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야전침대'라는 뜻을 가진 사내동호회 'COT'는 이름 그대로 침대처럼 달콤한 휴식을 선사하는 유비온의 대표 사내동호회다. 2003년 설립, 햇수로 벌써 6년차에 접어드는 COT는 삼삼오오 모여 '맛있는 점심 먹기'를 목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것이 시작이 됐다. 일상 속에서 소소한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 이후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월 1회, 주말 1박 2일, 출사대회와 운동 등의 레저 활동으로 그 영역을 넓혔다. 기본적으로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이 사내동호회는 비회원인 사원도 이벤트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단, 활동비가 지원되는 회원과 달리 비회원은 자신의 활동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레저동아리라는 명목 아래 태안 기름제거 봉사, 사랑의 김장, 연탄 나르기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유비온의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배드민턴, 농구 등 운동종목은 물론 봄꽃 출사대회, 요리대회 등 흥미로운 이벤트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일반 직원을 포함해 총 60여 명이 참여한 곤지암으로 스키·스노보드 캠프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전 사원이 함께하는 소통의 매개체**

30명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COT는 사내 친목활동 및 업무효율 증진, 사내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유비온의 경영관리팀을 통해 매년 심사를 거쳐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회원에게 매월 1만 원의 회비로 유지된다. 5년 이상 꾸준히 활동한 VIP회원의 회비는 5천 원으로 조정해 우대한다.

COT의 회장, 구재명 씨는 사내동호회가 조직문화 형성에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두고 있다. "서로 업무관계가 없는 팀의 팀원들이 사내동호회를 통해 교류해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됨은 물론, 직원 간 단합을 꾀하게 된다"며 "제한된 인원만이 아닌 전 사원과 거래처, 제휴업체, 지점까지 연결해 유비온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사이벤트'의 운영 등 유비온의 올바른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COT의 비전이다"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업무 상 커뮤니케이션이 전무하던 팀이 동호회 활동으로 만남이 이뤄지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업무협조 방향이 설정돼 예상을 초월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내동호회는 직원이 동호회를 통해 일상의 재미를 찾는 것보다도 작은 일탈을 통해 업무효율을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야 진정한 사내동호회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비온의 조직문화에 기여해 다른 벤처기업의 본보기가 되고 싶다는 COT. 출근길이 신바람 나는 기업은 당연히 매출도 신바람 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들의 작은 일탈과 일상 속 자유가 유비온의 지속적인 성장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본다.